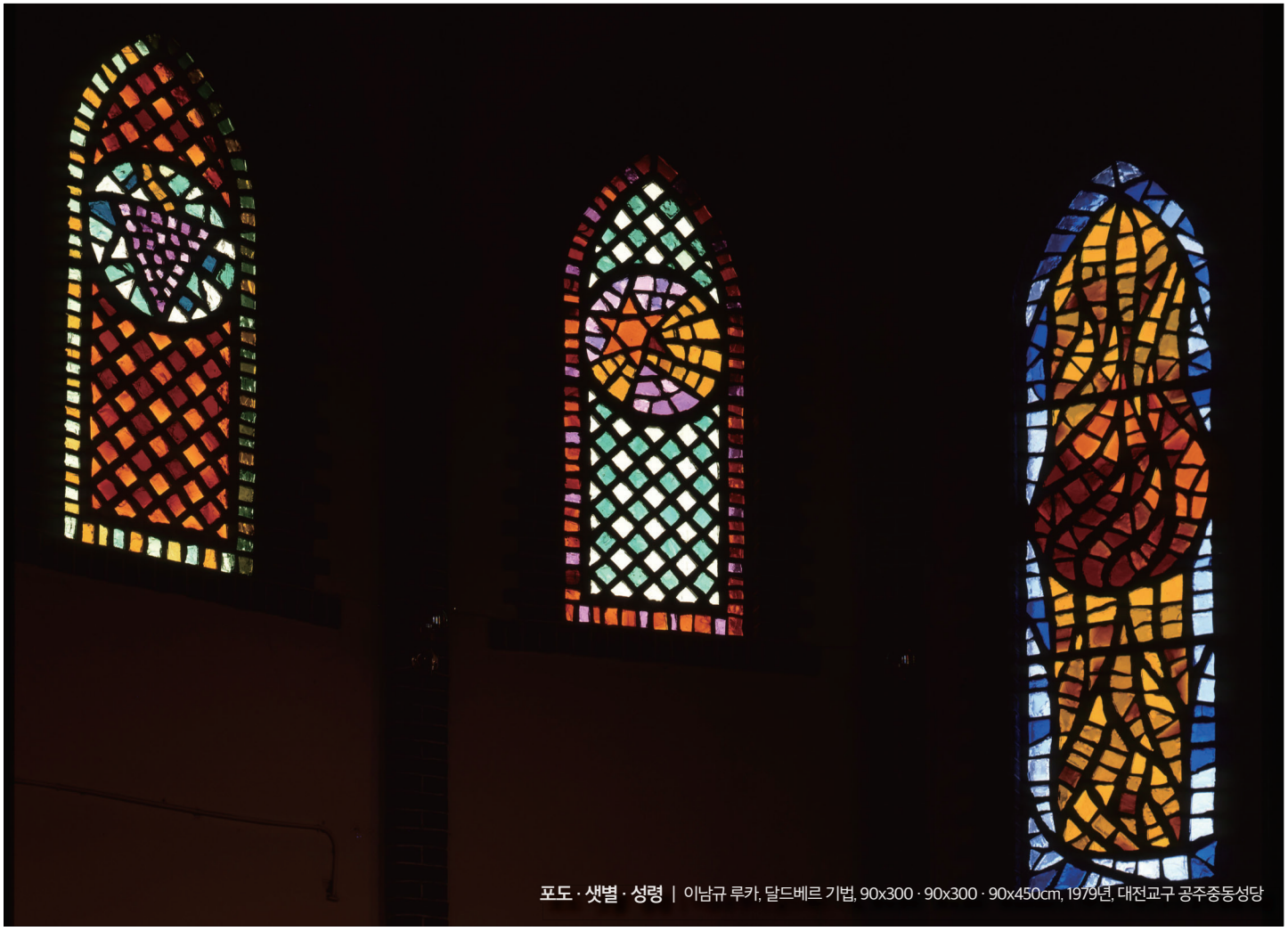
서울주보

제2477호 2023년 12월 3일(나해)

대림 제1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포도 · 샛별 · 성령 | 이남규 루카, 달드베르 기법, 90x300 · 90x300 · 90x450cm, 1979년, 대전교구 공주중동성당

입 당 송 |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서 | 이사 63,16ㄹ-17.19ㄷㄹ; 64,2ㄴ-7

화 답 송 | 시편 80(79),2ㄱㄷㄹ과 3ㄴㄷ.15-16.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 1코린 1,3-9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 음 | 마르 13,33-37

영성체송 |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tv 297번 / U+tv 274번

생명의 말씀

영적 갈증은 축복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하느님은 세상의 수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특별한 은총으로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느님만을 공경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모범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당신을 찾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주 우상 숭배에 빠져 서로 다투고 해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언자가 등장하여 심판을 예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곤경을 당하고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곤경은 기원전 587년 바빌론 제국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점령되어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족과 지도층은 대거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페르시아로 지배권이 넘어갔고, 기원전 538년 키루스 임금은 유다인들의 귀향을 허락합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이민족의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습니다. "당신의 재산인 이 지파들을 생각하시어 돌아오소서.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제1독서) 하늘을 찢고서라도 빨리 오시라는 간절한 외침에 하느님은 자비롭게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느님을 찾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인 영적 갈증은 축복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물의 소중함을 알고, 허기가 져야 음식의 고마움을 알게 되듯이, 영적 갈증이 있어야 하느님과 그분이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제2독서)가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갈증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와도 같습니다. 그 역할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내세에서 하느님을 마주 뵙고 충만한 복락을 누리게 되면 더는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하느님을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이승에서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만날 것입니다.(1코린 13,12) 이 복된 만남을 고대하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먼 길을 떠난 집주인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깨어 기다리고 있는 문지기처럼 말입니다.(복음)

대림은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세상 종말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신앙인은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시편 42,2-3) 영적 갈증을 간직한 채 하느님을 마주 뵙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그 복된 날을 희망하면서 매일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작품 설명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마르 13,33)

동이 트면서 서서히 비치는 빛은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저 또한 그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온전히 지켜지도록, 주님을 따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고 싶습니다. 제 삶에 빛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빛을 세상에 반영하며 깨어 있는지 묵상합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아버지의 유언

박종인 사도요한 신부 | 예수회원, 꿈나무마을 공동체

두 달 전에 아버지가 하느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임종 당시 강화도에서 가톨릭스카우트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정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시던 날 오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늦게 전화를 드리니 아버지가 아침에 속이 안 좋고 몸을 추스르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119구조대 차량에 태워 큰 병원으로 모셔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정을 되찾으셨다고 하셔서 하루 이틀 뒤에 퇴원하시려니 생각했는데, 두 시간 뒤에 홀연히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였을까?"라고 묻기보다는 아버지가 떠나실 때를 선택하셨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아버지는 40여 년 전에 위출혈로 위를 일부 잘라내는 수술을 하셨고, 또다시 위출혈로 지난 8월 말 위를 또 절제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장 쪽에도 악성 종양이 발견되어 장도 일부 잘라내야 했습니다. 여든넷이라는 나이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40여 년 전에, 수술 후 회복 중이셨던 아버지는 어느 날 누나와 제게 수술 후, 깨어나기 전에 경험하셨던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루터기에 앉아 크게 숨을 고르면서 아버지는 언덕을 바라보며 평온을 맛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 아버지에게 '저 언덕 너머로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하며 말을 거셨고, 아버지는 같이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잠시 남은 가족이 떠올라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는데 그 흰옷의 인물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회복실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지난 8월 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는 그때 떠나지 않고 마흔 해를 더 사셨기에 여한도 두려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잘 마쳤지만, 체력을 되찾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한가위 명절 연휴가 다 지나고 10월 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셨나 봅니다.

40년 전에 아버지가 그냥 떠나셨다면, 장남인 저는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됐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떠나지 않은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곁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제가 법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물론, 결혼 대신 수도 생활을 위해 예수회에 입회할 때도, 그리고 사제품을 받을 때까지도 줄곧 기다려 주셨습니다. 수도회 입회로써 저는 자립했다고 생각했지만, 양육시설에서 자라 스스로 서야만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비로소 저는 부친 토마스 아퀴나스 님이 남기신 말 없는 유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자립준비청년들의 곁을 지키는 일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깨어있는 하느님의 충실한 종처럼, 이 청년들을 기다려 주고자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사랑의 손길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사)막달레나공동체

상처받은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환대를….

영순(가명) 씨는 어린 시절 친척 아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했지만, 오히려 집안 망신이라는 꾸지람과 함께 매를 맞기 일쑤였고, 그 누구도 어린 영순 씨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영순 씨는 호적조차 없어 공장에도 취직할 수 없었고 그렇게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이후 영순 씨는 성매매 여성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요. 그래도 선생님들 덕분에 잠시라도 눈물 나도록 행복할 수 있었어요. 고마운 마음 제 가슴에 담고 떠날게요…." 55세 생일을 얼마 앞두고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영순 씨는 그해 겨울, 하느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로3가 일대에 가면 또 다른 영순 씨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든 남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가족이 남긴 빚을 대신 갚기 위해, 홀로 남겨진 손주를 키우기 위해, 끔찍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친 후 아이와 먹고살기 위해…. 그녀들은 각자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안고 오늘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막달레나공동체는 1985년, 용산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성들의 행복과 삶의 권리에 주목하며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면서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는 종로3가를 중심으로 성매매하는 중고령 여성들의 비참한 삶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생계 때문에 자기 자신은 돌볼 겨를이 없었던 그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 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는 그녀들에게 공동체는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하지만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막달레나공동체에서는 그녀들과 조용히 이야기 나눌 공간 하나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로 주변 상가 건물, 지하도 입구, 옛 피카디리 극장 주변 건물, 모텔 계단 등이 그녀들을 위한 상담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에게 언제라도 곁을 내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상처 입은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돌봄 지원 사업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여성들에게 따듯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며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드리고 병원에도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요."라고 고백하는 여성들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막달레나공동체가 함께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쉼터에서 그녀들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삶의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길 청합니다.

"삶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여러분의 시선에서 안전한 피난처와 환대를, 여러분의 포옹에서 격려를, 여러분의 손길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어루만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프란치스코 교황님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3년 12월 2일~2024년 1월 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사)막달레나공동체'**를 위해 씁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특별기고

1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최근 교황청 신앙교리부에서 '성전환자와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이가 세례성사와 혼인성사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문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문헌은 많은 언론의 관심을 얻어 "트랜스젠더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러한 언론의 반응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문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헌은 브라질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문의한 6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성전환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은 먼저 성전환자(transgender)의 의미가 "호르몬 처치와 성전환 수술도 받은"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는 남성의 몸이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여성의 몸이지만 스스로 남성이라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문헌은 그러한 인식을 지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의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호르몬 처치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들을 언급합니다.

성전환자들의 상황은 분명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로 구분되지만, 몸뿐만 아니라 정서, 사고방식,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등 모든 면에서 각각 남자이고 여자인 것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친교의 삶을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는 혼인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면서 친교를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전환자들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으며, 본인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 호르몬 처치나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처치는 무질서한 상황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치료의 목적 없이 신체의 온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문헌은 성전환자들의 세례에 대한 어떤 조건을 밝힙니다. 즉, ***"신자들 안에 공공연한 추문(스캔들)이나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세례가 자칫 앞서 언급한 부당한 행위를 승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환자들은 호르몬 처치나 성전환 수술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그와 같은 마음가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며 구원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하느님은 선교이십니다
시노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 [1]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

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교구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 시노드 개막 미사를 집전하심으로써 '2021~2023 제16차 시노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주제는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선교'(For a synodal Church: communion, participation and mission)이고, 그 회기를 1년 연장하여 2024년 10월 말에 폐막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드 관련 법규를 수정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의원 주교들의 회의체('주교대의원회')로서의 시노드와는 달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시노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2022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통해 '시노드'에 대해, 또 이번 '제16차 시노드'의 지향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구 차원을 넘어, 나라 전체의 주교회의 차원과 그 너머 대륙별 차원까지 진행된 터라, 어쩌면 '이제 시노드는 우리 손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 시노드 관련 규정을 수정하시면서까지, 그리고 회기를 2024년 10월까지 연장하시면서까지 이 시노드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앞으로 내내 걸어가야 할 모습이고 구현해야 할 지향점임을 강조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서울대교구의 2024년 사목교서를 통해 '시노드 교회란 선교하는 교회'임을 강조하면서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라고 호소하고자 합니다.

교구 차원의 시노드 경험 안에서, 본당 차원의 시노드나 각 공동체 차원의 시노드에 이르기까지,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노드는 단순히 '지금 우리 공동체의 현황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니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보자'는 정도의 결의를 하는 나눔이 아닙니다.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For a synodal Church: communion, mission and participation)라는 이번 제16차 시노드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회론적인 방향성의 제시이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드러내는 바가, "시노드 교회란 바로 '친교, 선교, 참여'의 교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노드 교회는 결국 '선교하는 교회' 곧 교회의 본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선교'란 단순히 세례 받은 신자 수를 늘리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교는 "종교적 산물의 마케팅"이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선포가 된다."라고 이번 시노드 의안집(52항)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주일미사에 참여하고, 계명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해방시키는 한 인격과의 만남, 곧 구원자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정이요, 그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 우리도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선교는 좋으신 하느님을 만난 그 기쁨을 몸소 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선교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선교의 토대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드님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 영원한 생명을 얻게

---

1) 그동안 진행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과정을 통해 참여가 친교와 선교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교황님께서는 그 순서를 변경하셨습니다. 이에 본 사목교서에서도 친교, 선교, 참여의 순서를 따릅니다.(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의안집 44항 참조)

하셨습니다."(요한3,16)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성부로부터 파견되어 행하신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인격은 하느님께서 피조물 안에 현존하시는 방식을 드러내고 성사화(聖事化)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바로 선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교사입니다."(복음의 기쁨 120항)

이번 시노드의 주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친교'(Communio)란 그저 사회적, 사교적 만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결합'이라는 수직적 차원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라는 수평적 차원이 있다고 시노드 의안집(46항)은 설명합니다. 시노드 교회가 지향하는 '친교'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을 포함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성사와 말씀, 그리고 기도 등이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일치'라는 친교의 수평적 차원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친교' 안에는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 자신과 맺는 친교(Communio)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감각적 화려함이나 안락함에 참행복이 있는 것처럼 매달릴 때, '나'는 '껍데기 나'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본연의 나'를 만나고 그 '참된 나'를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감사하게 되는 것도 '친교'의 한 차원입니다.

'선교'(Missio)는 '친교'(Communio)를 지향하고 '친교는 선교적입니다.' 선교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논리 대신에 하느님의 논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차원이 변화하여야 합니다. 교회로 볼 때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 사항, 사고방식, 영감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19항)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인격적 만남, 곧 친교는 선교의 필수적 전제이고 지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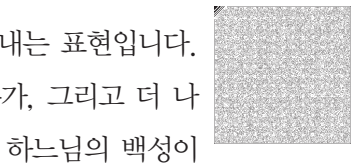
'참여'(Participation)는 '함께 가는 길'(syn-odos)이라는 시노드의 어원적 뜻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이요 사랑이신 하느님께 나아오도록 함께 부르심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적 조건에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느님 앞에서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 함께 세상의 주인공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애써야 합니다. '복지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향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의 논리를 앞당기면서... 그분들을 동등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2024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힘차게 계속 걸어가는 한 해가 됩시다. 하느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나 나를 넘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의 빛과 기쁨이 사회 안에 매력적으로 풍겨 나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특별히 2027년에 한국 교회 모두가 참여하고, 서울대교구에서 주최하게 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함께 준비해 가면서, 청소년·청년들의 준비 여정이 교회와 사회의 청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신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3년 대림절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장애를 지닌 이〉

사회가 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으로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존중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기도합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 등록 신청 안내

정규 등록 분야: 신축, 리모델링
등록 신청 기간: 11월 20일~12월 15일
자격 및 서류 제출, 심사, 등록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https://www.catholic.or.kr)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참조

국군 장병 및 수감자를 위한 성탄 위문금

본 교구 소속 군종 신부들이 전후방에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각 본당에서 성탄 위문금을 모금합니다. 또한, 좌절과 실의 속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수감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한 위문금도 모금합니다

12월 10일(주일)은 대림 제2주일로 제42회 '인권 주일'이며 '사회 교리 주간(12월 10일~16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2년 12월 8일 박정렬 바오로 신부(51세)
- 1968년 12월 8일 임종구 바오로 신부(58세)
- 1972년 12월 10일 김유룡 필립보 신부(80세)
- 2001년 12월 7일 이운기 스테파노 신부(44세)
- 2002년 12월 8일 김정남 안드레아 신부(46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 · 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내용 수정 · 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교구청 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12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12월16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사제: 김수규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직장사목팀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1) 직장사목팀 설립 30주년 기념미사
때, 곳: 12월14일(목) 20시, 명동대성당
주례: 정순택 대주교
2) 30주년 기념 AESTUS 직장인성가단 연주회
때, 곳: 12월15일(금) 20시, 명동대성당

학교사목부 교육봉사자 모집

서울 시내 초 · 중 · 고등학교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견진성사 받은 신자, 만 20세~60세 해당자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교육일시: 2024년 1월3일~5일 · 1월10일~12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11월27일~12월29일
회비: 10만원 / **문의:** 02)553-7321(일,월 휴무) 자세한 문의는 전화, 홈페이지(www.kycs.or.kr) 확인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3년 대림 특강

때, 곳: 12월4일~18일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3주간) / **문의:** 02)774-1784

12월4일(월)	생명이 생명에게 건네는 말	강명옥 수녀
12월11일(월)	케렌시아(Querencia) - 안식처	이문수 신부
12월18일(월)	생의 말기의 의미	오석준 신부

12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2월4일(월) 11시, 명동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12월 월례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12월5일(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사제
문의: 02)727-2385, 6 노인사목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2월7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및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30회)
때: 매월 첫째주(화) 12월5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12월16일(토), 12월17일(일), 12월26일(화)
곳: 안양 수리산, 하우현, 오야동 공소
신청: 12월4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2월4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2024년 1월6일(토)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접수(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이선 개인전: 1전시실
대림공예성물전 '빈손': 2전시실
글아캘리아카데미 회원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29일(수)~12월7일(목)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북녘 본당' 미사)

때, 곳: 1395차 미사 12월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서포 본당, 마산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2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평화의 모후 청년 쎌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노틀담 청년 송년 피정(노틀담수녀회)
대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청년 선착순 15명
때: 12월29일(금) 20시~31일(일) 15시
곳: 노틀담교육관(서울) / 문의: 010-3930-6730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때, 곳: 12월15일~17일·2024년 1월19일~21일 (금) 17시~(일) 15시(2박3일),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권민자 수녀 / 문의: 031)321-9054, 010-4154-0885

글라렛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12월10일(일) 11시~15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024년 1월5일(금)~8일(월)·1월26일(금)~29일(월)·2월16일(금)~19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탐방·성지순례
때: 2024년 2월17일~19일(수도원·대구 17곳)·3월1일~4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3월14일~17일(전주 11곳·광주 4곳)·4월20일~24일(울릉도·독도·수도원)-서울 명동(대형버스) 출발, 5월15일~28일(독일 수도원·바티칸·이탈리아)-인천공항 출발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7393-7924
때, 곳: 매주(월) 14시~17시,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12월11일	이창진 신부	12월18일	김정희 수녀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12월8일	성모찬송기도회	12월15일	박용일 신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2월5일	맹진학 신부	12월12일	이상기 회장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8일 피정(9박10일)	2024년 1월13일(토)~22일(월)
엄마와 딸(미혼) 피정	1월27일(토)~28일(일)
대관(30인 이하) 위탁 피정	소규모 피정·연수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강의·미사: 서정혁 신부 / 문의: 010-9074-6527
때, 곳: 12월4일(월) 10시~17시, 양천성당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오사카
회비: 120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2024년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 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때: 매월 둘째주(금~일) 2박3일 2024년 1월12일~14일·2월2일~4일·3월8일~10일
문의: 010-3209-3955 (문자 접수)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천주아기 태어나심은 '모든 이들에게 천당길을 걷게하기 위하심'이다 / 찬양: 고영민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12월9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2월16일~18일·2024년 3월1일~4일(추자도)·3월8일~10일·3월13일~16일(추)·3월18일~20일·3월23일~26일(추), **눈꽃산행** 1월6일~8일·1월12일~14일·1월19일~21일·1월27일~29일·2월3일~5일·2월14일~16일·2월23일~25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철야기도회·12월 토요 낮치유 대피정 / 문의: 02)874-6346
주최: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매듭을 푸시는 철야기도회
때: 12월5일~2024년 2월20일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미사 안수) 12주간
2)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12월9일(토) 9시30분~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강사: 김성대 신부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12월15일~17일, 2024년 3월10일~12일
연말연시 피정	12월29일~1월1일(눈꽃산행)
눈꽃산행	1월20일~22일, 1월26일~28일, 2월2일~4일, 2월17일~19일, 2월25일~27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곳: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 문의: 02)990-1004

대림 피정	12월5일·12일·19일 매주(화) 10시~16시
대침묵 피정	12월8일~10일(2박3일)
송년 피정	12월31일~2024년 1월1일(1박2일)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1월5일 10시~15시30분
다네이 영성수련	1월10일~12일(2박3일)
성지순례 (성 김대건 신부님 발자취)	5월22일~24일, 광주 명상의 집(서울 출발) / 062)571-5004

교육

성경통독 모임-비대면 Zoom
때: 매주(수) 19시30분
대상: 40세 이하 미혼 여성 / 문의: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성물·묵주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음악원(주최, 신촌)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10주년 이벤트
연중 다양한 이벤트(홈페이지 참조)
회비: 일반·첫걸음 2만5천원, 단과 1만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말씀학교 무료강좌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의와 함께) / 미사 있음
때, 곳: 매주(목) 10시~12시30분,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문의: 010-6287-9753

디지털 양육 및 자녀 신앙교육 세미나
때, 곳: 12월7일(목)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5-3호) /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010-6321-6823 김 노엘라 / 주최: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서강대학교 게임·평생교육원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2024년 1월~2월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개강: 1월2일(화)~3일(수) 강좌별로 상이함
주2회(문법·회화) 총 30시간, 8주 / 회비: 32만원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식 교육
문의: 02)705-8718(http://scec.sogang.ac.kr)

고3을 위한 몸·사·이(몸이 말하는 사랑 이야기)
대상: 고3(24년 졸업하는 학생) 선착순 12명 / 회비: 18만원
접수: www.teenstar.or.kr / 문의: 02)727-2359 한국틴스타

여학생	2024년 1월19일~21일	남학생	1월27일~29일

가톨릭성서모임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그룹형 성경 통독 / 주1회 비대면(그룹별 5~10명)
과목별(창세기-요한묵시록) 2~3개월 / biblemove.com
교재비: 과목당 4천원 /문의(접수): 02)824-4363

창세기 시작반	12월 중 첫 모임	평일 오후 8시 또는 주말반
마태오 시작반	12월 중 첫 모임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4년 1월16일(화)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1시~15시40분(2년, 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신학심화과정	11시~15시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모집

민족화해위원회 우니타스 성가대 및 기도봉사자 모집
1) 우니타스 성가대 단원 모집
대상: 각 파트 별(알토 대환영) / 010-5283-5680 단장
2) 평화나눔기도 봉사자 모집 / **문의:** 02)753-0815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4년 예정) 초2~초6 가톨릭 신자
오디션: 12월10일(일) 14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12월7일(목)까지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미사

쉬는 교우(젊은이들)위한 월례미사
때, 곳: 매월 셋째주(토) 16시, 예수회센터(212호)
문의: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12월9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성바오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때, 곳: 매월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 /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노고산성지 월례미사
때, 곳: 매월 첫째주(목) 12월7일 오전 11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성당 / 미사 후 성체현시 있습니다
문의: 02)705-8161 서강대학교 교목처

군종후원회 군종교구장 월례미사·특강
강사: 김혁민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12월4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45-6096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유동철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12월11일(월)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12월6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기념미사
때, 곳: 12월8일(금) 19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미사곡: 모차르트 Missa in C Coronation Mass
명동대성당 연합 합창단 / **지휘:** 최호영 신부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성음악봉사분과

안내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현상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아퀴나스합창단 성탄음악회
Vivaldi, Magnificat & Gloria / **지휘:** 최호영 신부
때, 곳: 12월22일(금) 19시30분, 서원동성당
문의: 010-6807-2704 김정규 부단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2023년 성탄 평화마켓(가톨릭 플리마켓)
청년 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초대합니다 판매금액의 일부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기부됩니다 / **문의:** 02)338-7832
때, 곳: 12월9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주최, 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1층 카페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2438-2377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영업, 물류, 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성산동성당 방호원(관리인) 모집
대상: 세례받은 신자
업무: 본당시설물 관리, 미화, 영선, 기타 방호 업무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2월16일(토)까지 우편(우 0399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길 15 성산동성당) 및 이메일(calas55@naver.com)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 이메일 문의

구파발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389-1501
분야: 관리인 1명(계약직)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물관리·미화·기타 방호업무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2월17일까지 방문·우편(우 03306,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29-16) 및 이메일(hashe1015@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회계업무·PC 업무 가능한 분 / **문의:** 02)873-2333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12월13일(수)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쑥고개성당) 및 이메일(uld@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육아휴직 대체인력)
대상: 세례받은 분 / 주5일(토·일 포함) 근무
업무: 가톨릭청년성서모임 행정, 홈페이지 담당
0명(홈페이지 및 DB 관리경력 우대)
근무기간: 2024년 1월1일~2025년 5월6일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2월15일(금)까지 이메일(youthbible@catholic.or.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매주(토)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12월16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성심수녀회	12월16일(토) 10시~18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2059-9633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12월10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2월9일(토) 14시	아프리카잠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사도 바오로와 함께 365 말씀 달력

성바오로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I 367쪽 I 2만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성바오로출판사에서 제작한 <사도 바오로와 함께 365 말씀 달력>이 탁상용으로 나왔다. 하느님의 말씀을 스승예수제자수녀회의 수녀님이 직접 그리신 365개의 그림과 캘리그라피로 만날 수 있다.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19 마르코복음서

스티븐 P. 아헌 크롤 지음
성서와함께 I 240쪽 I 2만1천원
문의: 02)822-0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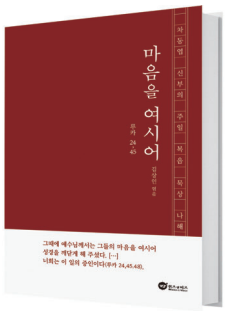
미네소타 대학에서 마르코복음서에 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폭넓게 마르코 복음을 이해하고 묵상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그간의 대세였던 역사비평의 통시적 연구, 구조주의의 공시적 연구 대신 화자의 이야기 전략과 독자의 수용 방식에 집중하는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신간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히구치 히데아키 지음
생활성서사 I 192쪽 I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을 전력 회사들이 다시 가동시키려 하자 지역 주민들은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을 걸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며, 원전을 멈추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하도록 촉구한다.



신간

차동엽 신부의 주일 복음 묵상 나해

마음을 여시어 (루카 24,45)

김상인 지음
위즈앤비즈 I 592쪽 I 2만5천원
문의: 031)986-7141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 신나는 신앙을 힘있게 선포하던 고(故) 차동엽 신부의 묵상집이 나왔다. 미래사목연구소의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한 김상인 신부는 차동엽 신부의 제자로서, 차동엽 신부가 선종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스승의 글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전시

로렌차일드: 요정처럼 생각하기

기간: 2024년 3월 3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입장권: 성인 1만8천원, 유아·어린이·청소년 1만5천원 / 문의: 02)6273-424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천원 할인

로렌 차일드는 영국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로 모험적이고 독특한 그림체와 콜라주 기법을 선보여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여러 테마에 맞춰 다채롭게 구성된 전시 공간을 통해 로렌 차일드 원화 작품 12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음악회

국립합창단 2023 송년음악회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 문의: 02)2280-4114 국립극장,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제196회 정기 연주회 <2023 송년음악회 '겨울가면 봄 오듯이'>가 오는 12월 19일(화) 19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창작 합창곡과 한국 가곡, 우리 가요 명곡들을 합창 클래식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선보이는 무대로 그리움과 위로, 감사와 사랑, 기쁨과 행복, 열정과 희망을 주제로 올 연말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마무리한다.

✣✣ 기부 천사 ✣✣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1월 13일 ~ 11월 26일 : 800,000원)

누계 : 4,472,584,413원

심 종 헌 :	500,000원	김 민 찬 :	150,000원
곽 은 주 :	150,000원		

기부 천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연령회 월례회의 : 12월 10일(주일) 오전 11시 꼬스트 홀

◉ 성탄 집중 판공성사

날 짜	시 간	장 소
12월 16일(토)	10:00~20:00	상설고해소
12월 17일(주일)		
12월 19일(화)	11:00~20:00	
12월 20일(수)		

※12월 18일(월)은 기존과 같이 성직자·수도자를 위한 고해성사(13:00~17:00)로 진행되고 일반신자 고해성사는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해성사 휴무 : 12월 23일(토)~2024년 1월 1일(월)

◉ 성탄봉헌금 접수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며, 성당 안과 마당에 마련될 구유와 제대 트리, 꽃 장식을 위한 '성탄봉헌금'을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희망 트리'에 소원을 달아 드립니다 !

대림 기간 동안 주일미사 때 본당에서 제공하는 색종이를 받아 소원을 적어 접수하시면 '희망꽃'에 담아 성당마당 '희망 트리'에 달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비신자도 참여 가능)

◉ 명동 3545+ 청년성서모임 신입 말씀의 봉사자 모집

·모집대상 : 2023년 현재 33~43세(1981년생~91년생)의 세례 받은 교우로 탈출기 그룹나눔 이상 과정 수료 혹은 현재 나눔 중인 자 (※혼인여부 무관)

·지원방법 : 온라인 카페(cafe.naver.com/ourbible3545) 가입→공지 참조

·접수마감 : 12월 17일(주일)까지

·문 의 : 이메일(logos3545@naver.com)

◉ 명동대성당 청년전례단 '쉐마' 신입단원 모집

·주요활동 : 주일 오후 7시 청년미사 전례봉사

·모집대상 : 20~33세(1991~2004년생) 천주교 신자

·모집기간 : 12월 31일(주일)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지원문의 : mdshema@naver.com

※추후 자세한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공지됩니다.

◉ 2024년도 하반기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추첨

·혼인예약 : 2024년 7월 ~ 12월

·추첨일시/장소 :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2시 / 대성당

☞ **낮 12시**부터 **성당마당 부스**에서 '추첨 순서번호표'를 배부합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수령 가능)

☞ 이중 추첨, 양도 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 불가 !

·혼인장소·요일별 혼인 가능시간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	17시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본당 홈페이지→혼인성사 안내→'**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구(본당) 행사로 인해 추첨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2024년 1월 19일(금)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III - 박진형 피아노 리사이틀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 제3회차의 마지막 공연은 피아니스트 박진형의 리사이틀로 진행됩니다. 피아니스트 박진형은 2016년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당 타이손은 "독보적으로 아름다운 음색을 지닌 피아니스트"라는 극찬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국제 무대에 정식 데뷔하여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페스티벌에서 전석 매진으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뤘습니다. 박진형은 유년 시절 소년한국일보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이화경향콩쿠르, CBS청소년음악콩쿠르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하였으며 중앙음악콩쿠르 만장일치 우승과 함께 국제 무대로 발을 넓혀 힐튼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산탄데르 국제 피아노 콩쿠르, 몬트리올 국제 음악콩쿠르 등 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코리안 영 아티스트 시리즈 제3회차의 마지막 무대인 이번 공연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일시/장소 : 12월 11일(월) 오후 7시 30분 / 파밀리아 채플

·출연 : 피아니스트 박진형

·예매 : 전석 20,000원 (인터파크 티켓 판매 중)

☞ 비지정석, 휴식시간 없이 약 60분 공연

·문의 : 주관사 목프로덕션 ☎ 338-3816

※프로그램 및 연주자 약력은 예매사이트와 본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킴)신부
부 주 임 진슬기(토마스아퀴나스)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신부
보 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파노)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신부

미사 성가	입당 : 89	봉헌 : 210, 217, 513	성체 : 504, 162, 169	파견 : 91

◉ 성당 경내 조명 점등

대림 제 1 주일부터 성당 경내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조명을 밝힙니다. 우리 마음의 불빛도 함께 밝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대림 시기(12월 3일~12월 22일) 판공성사

※대림 제 1 주일부터 보신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간주됩니다. **판공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 중이며, 대림 제 1 주일부터 12월 22일까지 판공성사를 보신 분들은 교적에 성사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사표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명동이나 타 본당에서 성사표 없이 성사 보신 명동 교적 신자분들은 내방 또는 유선으로 사무실에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은 '주보 하단 표' 참고)

◉ 2024년도 달력 배부

대림 제 1 주일인 오늘, 성당마당 부스에서 2024년도 달력을 배부합니다. **당일 주보**를 **지참**하시고 '**한 가정에 한 부씩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 12월 예비신자 교리반

12월 교리반 입교 시 세례성사는 2024년 6월에 거행되며, **12월 3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2호	류지인 (야고보) 신부
주일반	오후 4:00	교구청본관 401호	이 마리헬렌 수녀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 **전화·사전 신청 불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 **준비물 :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첫 수업일 : 수요반(12월 6일), 주일반(12월 10일)**

◉ 2023년도 명동대성당 대림 특강

·시간/장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8시 / 대성전

일 자	주 제 & 강 사
12월 4일 (월)	**생명이 생명에게 건네는 말** 강명옥 (안나) 수녀님 -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원장 -

《 축하합니다 》

12월 7일(목)은 본당 선교·교육 담당이신 **조인기 (암브로시오) 부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시도록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본당 주보(主保) 성인 축일 기념미사

12월 8일(금)은 본당 주보이신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당일 오후 7시 미사는 본당 성음악봉사분과 소속 성가대가 연합하여 성가 봉사를 하오니 함께하시어 거룩하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후 6시 미사는
'파밀리아 채플'에서 봉헌합니다.

《 미사 안내 》

12월 11일(월) 오후 4시 대성전에서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가 봉헌됩니다.

· **주례 :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과**
한국 주교단 공동집전

◉ 병자 영성체 : 12월 6일(수) 오전 9시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일시/장소 : 12월 7일(목) 오후 8시 / 대성전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1/20-11/26).....29,367,130
- 그리스도 왕 대축일 헌금.....37,999,000
- 감사헌금 (11/20-11/26).....2,003,500

김 노엘라 / 김 발렌티노 / 김 요안나 / 남 요한
박 세라피나 / 박 클라라 / 안 안젤라
오 헬레나 / 유 마리아 / 이 레지나 / 이 베드로
이 헬레나 / 장 미카엘 / 전 마리안나
정 라파엘라 / 익명(1)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주일미사 (토요일)		18:00, 19:00(3545+ 미사)
평일미사	월	07:00, 18:00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Sun.	08:30 - 08:50		
Fri.	16:00 - 18:00	Sat.	15:00 - 17:00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